

#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적예지의 비범성

박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불세출의 위대한 정치가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정치는 바로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는 선군정치로 되여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시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90년대는 우리 혁명앞에 형언할수 없는 시련과 난관이 겹쳐있던 엄혹한 시기였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들의 공격의 화살은 자주,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에 집중되였다.

조성된 정세의 엄중성을 명철하게 포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선군혁명업적을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구원할수 있는 근본비결이 있다는것을 깊이 절감하시고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이시였으며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수호전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승리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불후의 로작들을 련이어 발표하시여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적예지의 비범성은 무엇보다먼저 군사가 국사중의 제일국사라는것을 가장 과학적으로 해명하신데 있다.

세계정치사를 둘러보면 정치에서 군사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한 사상가, 정치가들이 적지 않았고 군사를 중시한 정치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 어느 시대에서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그 어느 정치인도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운적은 없었다. 선행한 혁명리론에서도 군사문제의 중요성을 일정하게 강조하였지만 그들도 이 문제를 주로 로동계급의 주권전취와 조국방위에 한한 일시적인 문제로 보았으며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기간 당과 혁명, 인민대중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보지 못하였다.

국방분야는 거대한 물질적소비분야이며 따라서 군력강화에 힘을 넣으면 그만큼 경제가 약해지고 나라의 전반적국력이 약해진다는것이 군사에 대한 종래의 굳어진 관점이었다.

력사와 현실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총대가 노는 역할문제, 군사문제의 중요성을 새롭게 해명할것을 절실한 요구로 제기하였다. 이 문제는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희세의 정치가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가장 과학적으로 해명되게 되었다.

일찌기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총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시던 나날에 그 누구보다도 총대의 귀중함을 깊이 절감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군부대헌지지도로부터 혁명령도를 시작하시였으며 혁명령도의 전기간 언제나 총대중시의 로선과 정책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군사중시사상과 로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선군혁명령도업적에 기초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총대철학을 정립하시고 인민대중의 자

주위업수행에서 군사는 국사중의 제일국사이라는것을 독창적으로 해명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롭게 정립하신 총대철학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나라의 전반적국력강화의 길을 뚜렷히 명시한 독창적이며 혁명적인 철학이다.

혁명에서 기본은 총대이다. 혁명투쟁은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계급적원수들과의 첨예한 힘의 대결을 동반하며 이 대결에서 승패를 결정하는것은 다름아닌 총대이다. 강력한 군사력을 떠나서 혁명에서 승리할수 없다는것은 력사가 보여주고있다. 총대의 의의와 역할은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더욱 높아진다. 사회주의건설이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계급적원수들과의 치열한 대결속에서 진행되는 조건에서 총대를 강화하고 군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떠나서는 경제건설의 평화적환경도 보장할수 없고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도 보장해줄수 없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도 없다. 혁명군대의 총창우에 평화도 있고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도 있다.

군력은 나라의 전반적국력강화에도 기본요인으로 작용한다.

현대공업의 집합체인 국방공업은 전반적인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이며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현대과학기술의 최신성과들이 선차적으로 도입되고 가장 우수한 과학기술력량이 집중되어있는것도 국방분야이다. 따라서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군사과학기술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때 전반적경제와 과학기술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군력강화는 혁명군대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임으로써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도 비상이 강화되게 한다.

그러므로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력강화에 선차적이면서도 최대의 힘을 넣는것은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가는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로선으로,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되게 된다.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적예지의 비범성은 다음으로 혁명의 주력군문제, 혁명군대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에 기초하고있다는데 있다.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는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에 대하여서만 많이 강조하여왔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는 19세기 중엽에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의 사회계급관계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로동계급이 자본의 지배와 온갖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실현할 사명을 지닌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이라는것을 밝히고 로동계급을 혁명의 령도계급, 주력군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당대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리론이였으며 그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로동계급을 주력으로 하여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건설이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는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벌리는것이 어길수 없는 혁명의 공식처럼 인정되여왔다.

그러나 시대는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으며 사회적환경도, 계급관계도, 로동계급의 처지도 오늘에 와서는 크게 달라졌다. 변화된 시대적환경과 현실적조건은 선행한 혁명리론으로서는 정확히 풀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였으며 혁명의 핵심을 바로 키우며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사상리론과 전략전술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대의 발전과 변화된 사회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

초하여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어떤 혁명에서나 고정불변한것으로 될수 없으며 계급관계에 기초해서만 해결할 문제도 아니라는것, 사회의 어느 계급, 계층 또는 어느 사회적집단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되는가 하는것은 그가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그의 혁명성과 조직성, 전투력에 의하여 규정된다는데 대하여 독창적으로 해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군대에 대한 새로운 견해와 관점에 기초하여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였다.

세계사회주의운동과 반제투쟁의 역사를 놓고볼 때 선행한 혁명리론의 최대의 약점은 혁명과 건설에서 군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옳게 보지 못하고 특히 군대를 혁명의 중요한 정치적력량으로 보지 못한것이다. 지난 시기 군대는 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있는 계급적지배의 수단으로 간주되어왔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도 군대를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무기로, 혁명을 수호하고 조국을 보위하는 수단으로만 취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군대가 혁명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그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였다.

혁명군대는 혁명의 제일생명선인 반제군사전선을 맡고있는 무장한 혁명집단이다. 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총대로, 목숨으로 수호하는 혁명군대의 역할을 떠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혁명군대는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있어서도 그 어느 집단보다도 강한 혁명대오이다. 혁명군대와 같이 신념이 투철하고 의지가 강하며 계급적원썹들에게 무자비하고 혁명적원칙앞에서 비타협적인 집단은 없다. 조직성과 규률성에 있어서 제일 강한 대오도, 집단주의정신이 가장 높은 집단도 다름아닌 혁명군대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혁명군대는 주권전취를 위한 투쟁과 조국수호전에서는 더 말할것도 없고 혁명발전의 모든 단계와 모든 분야에서 언제나 선도적이며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 위력한 정치적력량으로 되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군대를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역할을 비상히 높여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가기 위한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되게 된다.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적예지의 비범성은 다음으로 첨예한 국제정세와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가장 정확히 분석하신데 있다.

해당 정치방식의 생활력은 조성된 정세와 시대의 요구를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된다.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정치만이 시대를 주도하고 추동하는 위력한 정치방식으로 될수 있다.

선군정치가 전면적으로 확립되던 지난 세기 90년대는 우리 혁명뿐만아니라 인류의 자주위업앞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된 시기였다.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로 세계정치구도와 력량관계가 급격히 변화된것을 기화로 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사용을 공공연히 제창하면서 오만무례하게 책동하였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전횡을 부리고 국제적정의도,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침공도 서슴없이 감

행하면서 세계제패야망실현에 광분하고있었다. 이로 하여 국제정세는 날을 따라 더욱 첨예하게 악화되었으며 자주를 위한 인류의 투쟁은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제국주의반동들의 횡포한 책동을 결정적으로 짓부실수 있는 최강의 무기는 강력한 군사력에 있으며 반제군사전선이 현시대 나라와 민족,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본전선이라는것을 밝히시고 선군정치를 제국주의가 지구상에 남아있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인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하여주시었다.

강자가 약자를 먹어치워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데가 없는 지금에 와서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도는 다름아닌 자체의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고 그에 의거하는데 있다. 군력이 강하면 남의 눈치를 볼것도 없고 남에게 눌리울것도 없다. 더우기 제국주의자들의 강권이 판을 치는 오늘날 강력한 군력을 떠나 자주정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고 인류의 공고한 평화도, 나라와 민족의 번영도 바랄수 없다.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며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혁명하는 나라들은 선군을 전략적인 로선으로, 정치의 기본방식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것은 우리 혁명발전과 인류정치사에 특기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심으로써 세계정치사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견결히 옹호하고 철저히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정치가 출현하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가장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인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우리 혁명실천에서 뚜렷히 실증되었으며 날이 갈수록 그 견인력은 더욱더 높아지고있다.

참으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놓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인류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고귀한 업적중의 업적이다.

우리는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이 건설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